

14 공도읍 농로 개선 및 확장 사업

개구리와 맹꽁이가
‘논에서’ 놀게 하라

사업 목적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지이용률 극대화와 함께 기계화 영농을 유도한다.
농민, 지역,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적 방식으로 시행한다.

사업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건천리, 진사리
개발 면적	114.95ha(수혜 104.82ha)
총 사업비	40억500만원(국비 22억1000만원, 지방비 17억9500만원)
주요 사업	시행 전 245필지 → 시행 후 97필지 용수로: 26조 8.36km(구조물/ 종단 8361m, 횡단 28개소) 배수로: 26조 7.31km(구조물/ 종단 6805m, 횡단 16개소)
시행	경기도
사업 기간	2008. 12. 17~2009. 10. 31

❁ 의미

경기미 인기에 ‘친환경’ 더하다

수혜자 1/ 공도읍에는 예로부터 개구리에 대한 전설이 있다. 불당리가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데, 뱀이 불당리에 있는 큰 바위 모양에 기가 질려 잡아먹지 못해 뱀굴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그곳이 승두리 사곡마을이다. 이제 승두리의 개구리들에게는 승두리가 풍수상이 아닌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됐다. 콘크리트 생태수로로 개구리 등 양서류가 탈출하기 쉽게 경사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수혜자 2 / 건천리 농민들은 더 이상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천리의 이름마저 바뀌어야 할 지도 모른다. 건천리는 물이 없어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때 윗마을에서 보를 막고 물을 주지 않아 천의 물이 말라 건천으로 불렸다고 한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물이 부족하지 않아 ‘건(乾)’자가 마르다는 뜻과 함께 하늘이라는 뜻도 있어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얘기한다. 아무튼 수로관과 개거 설치로 용수 공급이 원활해진 게 사실이다.

공도읍 3개리에 걸쳐 이뤄진 이번 사업은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인터체인지 부근 양쪽의 넓은 농지가 사업 대상지다. 양쪽 옆으로 승두리와 건천리, 진사리가 서로 붙어 있다.

안성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왼쪽으로 차를 돌리면 사업 대상지가 보인다. 공도읍은 요즘 뜨는 곳이다. 안성인터체인지 앞 큰길을 사이에 두고 팽택시와 마주하고 있다. 공도읍

은 길가를 따라 동쪽으로 가야 하지만, 사업지는 서쪽의 평택과 붙어 있다. 안성인터체인지 앞 평택에는 대규모 단지인 푸르지오아파트가 한창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지 금방이라도 개발 바람이 불 것 같은 느낌이다.

바로 이곳 공도읍 3개 리에 미래 농촌 모습을 만들었다.

40억여원이 들어간 이번 사업으로 이 일대 용수로·배수로 시설이 개량됐고, 농로 확장과 더불어 급수개폐기도 새롭게 설치됐다. 진사리에서 승두리 쪽으로 가는 길목의 농수로에는 강우나 농수로의 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까지 마련했다.

환경을 고려한 시설 개선도 돋보였다.

기존의 콘크리트 수로의 생태통로는 개구리·맹꽁이 같은 양서류가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벽에 경사로를 새롭게 만들어 양서류가 개천에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사로 설치 구간이 좀 긴 느낌인데, 양서류가 주로 활동하는 여름에는 농수로에 물이 흐르게 되어 길지는 않아 보인다.

식생호에도 친환경 블록을 설치했다. 물 흐름이 용이해진 데다 깨끗이 정돈돼 개천과 배수로의 미관도 좋아졌다.

이밖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도 잘 수렴해 해결했다. 간이 양수장 설치와 함께 팽성지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용수 간선의 윗부분에 박스를 설치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곳의 영농 인구는 77% 정도가 60세 이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는데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설 개선 사업이었다. 수원 확보를 위한 분기관 설치 요구도 받아들여 처리했다.



❁ 또 다른 효과

‘안성마춤쌀’로 경쟁력 확보

사업 목적이 경지이용률 증대와 기계화 영농을 통한 경제성 향상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 전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쌀 생산비가 헥타르당 59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이용률(5.4%)과 쌀 생산량(10.8%)이 늘어난 데다 노동력 투입 시간도 22.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긴 하지만, 이런 효과를 볼 때 공도읍에서 실시한 이번 사업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의 특산품인 ‘안성마춤쌀’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 현재 경기도에선 ‘여주 대왕님쌀’, ‘이천 임금님쌀’, ‘포천 고시히가리쌀’, ‘평택 수퍼오닝쌀’이 ‘안성마춤쌀’과 경쟁 중이다.

쌀의 경쟁력 확보는 1차적인 효과로 그치지 않는다.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쌀을 활용한 전통주와 떡 등 2차 가공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재정 자립도에 차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사 전]



[공사 후]



[공사 전]



[공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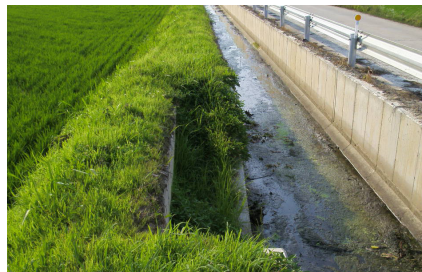
[공사 전]



[공사 후]



[공사 전]



[공사 후]

피터 드러커의
CAIRA 방식에 의한
성과 진단

쌀 가공 · 저장 · 유통 총괄하는 미래 지향적 관점 접근 돋보여

미션

경기도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경기미를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쌀로 생산, 보급하는 게 미션이다.

경기도는 1969년부터 1974년에 걸쳐 일반 경지 정리 사업을 시행해 농업생산력을 크게 향상시켰는데, 이런 노력은 오늘날 경기미의 명성을 안겨준 기반이 됐다.

고객

1차 고객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경 농민이다. 청년 농사 인력이 날로 감소하고 농촌이 노령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농경지의 대규모화와 기계화는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자경 농민의 바람은 농업 생산 기반 정비다.

2차 고객은 경기미를 찾는 잠재적 구매자들이다. 예로부터 경기미는 궁중에 진상미로 올랐을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성과

경제 성과가 두드러진다. 경지이용률 증대, 쌀 생산량 증가, 노동력 절감, 쌀 생산비 절감 같은 지표로 측정이 가능한 경제 성과는 곧바로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될 것이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쌀의 2차 가공 산업이 활성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미의 친환경 이미지 향상과 함께 쌀 생산성이 높아지면, 쌀을 활용한 전통주나 떡 등 관련 사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피터 드러커의 CARA 방식에 의한 사업 성과 진단]

공도읍 농로 개선 및 확장 사업 CARA 평점 분포

40점

Concentration

확실한 정량적 목표 설정,
경기도의 쌀 생산지로서의 강점,
철저한 일정 관리

Abandon

부적절 사업지
과감하게 제외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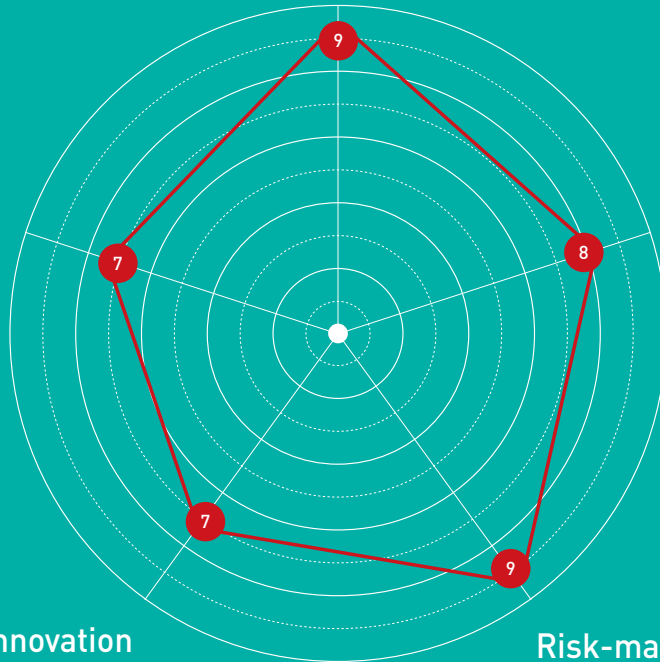
성과 지표의 구체적
분석 수단 확보

Innovation

생태 서식 환경 조성,
명예감독관제 도입

Risk-management

충분한 민의 수렴으로 마찰 요인 제거,
예산승인을 위한 유연한 수단 확보



C·A · 집중과 포기 CAIRA · CONCENTRATION & ABANDON

명품 경기미의 강점에 강점 더하기

경기도는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가 넓게 펼쳐진 데다 대부분이 한강을 끼고 있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평택, 안성, 파주, 여주, 이천 등지에서 생산하는 쌀은 고품질 경기미로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안성시 공도읍은 특히 독특한 곳이다. 경부고속도로 양쪽으로 농지가 펼쳐져 있는데다 인근의 평택시에 비해 도시화가 덜 진행돼 같은 경기미라도 더 친근감이 있다. 특별히 버릴 것은 없지만 덜 진행된 도시화는 쌀농사에 도움을 준다.

I · 혁신 CAIRA · INNOVATION

동물 이동 가능하게 디자인

사업 자체가 혁신이다. 용수로와 배수로 시설 개량, 수로 잔여 부지의 농지 확장과 안전 시설 설치, 수로에 급수개폐기 설치 등이 영농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작은 배려도 있다. 기존의 콘크리트 수로는 벽이 수직으로 되어 개구리 같은 양서류의 이동이 어려웠다. 이번에 수로를 개선하면서 수로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만들고, 그곳을 흙과 풀로 덮어 서식 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친환경 농업단지를 구축하면서 쌀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체의 삶까지 고려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기존에 수로 사면이 흙과 풀로 덮여 있던 것을 식생이 가능한 블록으로 교체했다. 식생 블록은 물과 공기가 통해 풀이 자랄 수 있는 인공 벽돌인데, 일반적으로 강이나 하천의 인접 경사면에 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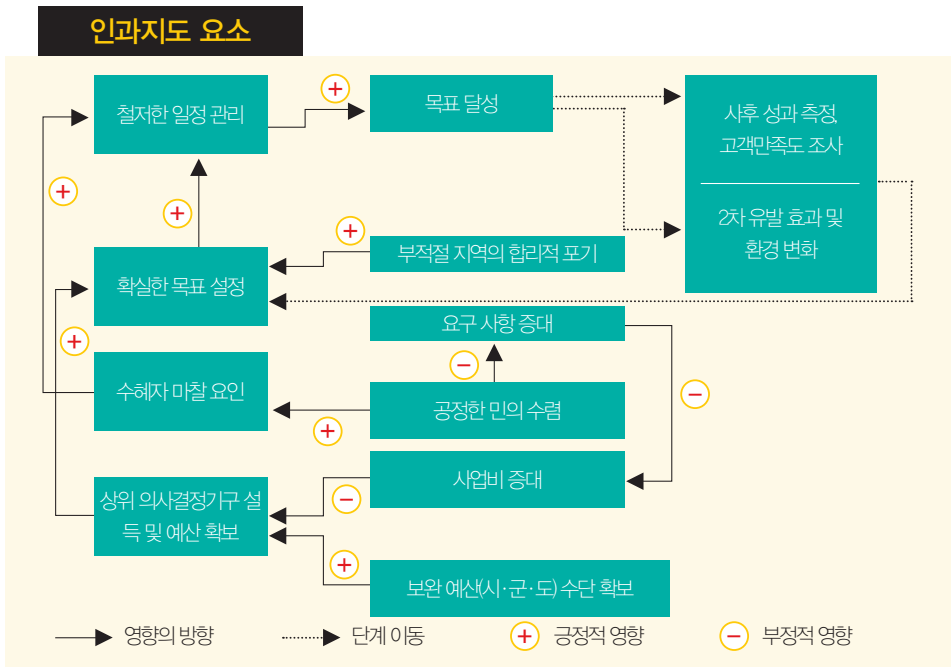
R·A · 위험과 분석 CAIRA · RISK-MANAGEMENT & ANALYSIS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한 내용과 다른 요소들이 생겨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

가 있는데, 이 사업에선 정책 결정권자인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사업 예산을 받는 게 힘들었다.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농지에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명분을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전 해에 명확한 경제적 예측 성과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벌여 이 문제를 해소했다. 경기도는 위험에 대한 대응과 철저한 정보 분석에 바탕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경지 정리 사업 전문 기관인 한 국농어촌공사의 자문을 받았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제약은 모내기 이전에 대상 지역의 시공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정 지연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마찰을 최대한 방지했다.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시적인 유형물의 하위 목표와 개선해야 할 수치적 지표들을 확실히 설정했다. 가시적 유형물이란 용수로 · 배수로의 개선 상태, 농로 상태, 구획 계획 등이다. 수치적 지표란 경지이용률, 쌀 생산량, 노동력 투입 시간 절감 규모, 쌀 생산비 절감을 가리킨다.

다음으로는 합리적 포기가 있었다.

도시화 정도, 규모의 협소성을 고려해 인근의 비슷한 사업지구와 상승 효과가 미진한 지역은 과감히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과감한 포기가 없었다면 자칫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여론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용한 탓에 사업비가 지나치게 늘어났다. 이 점을 예산 담당 주체인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이 사업은 이 문제를 지방비인 도 · 시 · 군비로 어렵사리 확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여론 수렴은 사업비 증대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혜자인 지역 농민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요인을 최소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이때 주민 명예감독 관제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덕분에 모내기 이전에 모든 구조물 구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매년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성과 지표들도 정기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